



마음의 잔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묵상

“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.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.” (마태 23,26)



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

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“너는 위선자다”라고 단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

“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, 네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.”

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,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,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게 되며,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.

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깨끗해 보이는 잔이 아닙니다.

속이 깨끗해져서 겉도 깨끗해지는 잔입니다.

내 안의 먼지를 볼 수 있는 것,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,
그리고 주님께 그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것, 바로 그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.

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,
우리는 비로소 착각에서 벗어나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의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
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.

아멘.